

비혼 여자 청소년의 임신갈등 경험에 관한 연구*

배희분** · 이해정***

상명대학교 · 청소년&젠더 연구소

비혼 여자 청소년의 임신갈등 경험 탐색을 위해 비혼 상태에서 임신한 출산 전후 여자 청소년 2개 집단 5명에 대해 질적 면접을 진행하여 경험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학적 체험연구 방법으로 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3개의 주제와 1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임신갈등 속 홀로 남겨짐’이라는 주제에 ‘믿기 어려운 현실’, ‘혼인 없는 임신과 아이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통’이라는 3개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절망 속 끝나지 않은 선택’이라는 주제 아래 ‘남자와 달리 종난 여자의 인생’, ‘지움의 갈등’, ‘키움의 갈등’ 3가지 하위범주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질서 속, 주체로 재탄생’이라는 주제는 ‘나를 버림, 그리고 내가 버림’, ‘태아를 느낌’, ‘새로운 관계의 인식’, ‘미래의 나에게 다가서기’ 등 4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임신갈등 여자 청소년이 어머니로 자신을 자각하게 되면서 임신으로 위축되었던 삶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 자신을 재탄생시키기 위해 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여자 청소년, 비혼, 임신갈등, 현상학적 체험연구

논문투고일(2019. 11. 01), 논문심사일(2019. 12. 01), 게재확정일(2020. 01. 01)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의뢰로 수행한 ‘청소년 임신갈등위기 상담제도 개선방안 및 상담매뉴얼 개발’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상명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교수

*** 교신저자, 청소년&젠더 연구소 연구위원 iamwitch428@gmail.com

I. 서론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의 임신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로서 인식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임신과 출산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혼전 임신과 출산이 사회적인 일탈 행위로서 받아들여지고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특히 청소년의 임신 상당수가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기보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혹은 입양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김현주, 이재연, 2012). 전체 출생아 중에서 법적인 혼인 관계 외에서 출생한 혼외 출생아 비율은 우리나라가 1.5% 수준으로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의 주요 OECD 국가 혼외 출생아 비율이 50%를 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신윤정, 이상림, 김윤희, 2012). 물론 유럽의 경우 실제 발생-통계 집계가 가능한 상태에서의 수치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공식적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단순비교가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생애과정 상 학업 등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임신 출산에 적합한 타이밍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는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은 가족과 사회에 긴장을 초래하는 일탈로 간주 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도 청소년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예방을 통하여 이를 감소시키는 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출산이 청소년 자신과 출생한 자녀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많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비율이 높고, 낮은 학력과 자격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실업 상태 혹은 저숙련 저임금 직종에 종사할 확률이 높으며, 질 낮은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결국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빈곤한 환경에서 자라날 확률이 높고, 주변 지지체계 없이 양육됨에 따라 유기와 학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중 다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거나 약물과 알코올을 남용하며 결국 이들 역시 청소년 부모가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김만지, 2004;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5.2%가 성관계를 경험하고 피임실천율이 절반 정도 (질병관리본부, 2017)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임신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청소년의 수는 상당하다고 추정된다. 이른 성관계, 의도치 않은 임신, 불법이라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그리고 출산을 하더라도 양육보다는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은 청소년이 처할 수 있는 임신갈등의 산적한 고비들을 보여주는 험난한 경로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비혼¹⁾ 여자 청소년이 겪는 임신갈등 경험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임신으로 인해 야기된 복합적 갈등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각자의 가치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고, 그러한 선택 이후에 자신의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청소년 임신·출산 예방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van Manen(2014)의 현상학적 체험연구 접근법을 사용하여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비혼 여자 청소년이 겪는 임신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임신갈등”이라는 개념은 원래 1992년에 제정된 독일의 “임신갈등법”에서 유래하는데, 낙태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낙태 전 상담을 필수로 받도록 한 독일의 형법 제218a조에 따라 임신 후 출산과 낙태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이후 독일의 임신갈등법은

1) 국립국어원(2019)에 따르면,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음, 또는 그런 사람’이고, ‘비혼’은 ‘결혼하지 않음, 또는 그런 사람’으로 정의된다. 결국 ‘아직’이라는 부사 하나의 차이로 이는 미혼이라는 용어가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이지만 아직 이르지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데 반해 비혼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삶의 한 상태로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단어가 임신이나 출산과 결합하여 ‘미혼모’ 또는 ‘비혼모’와 같은 방식으로 쓰일 때 전자는 부정적 의미나 도덕적 비난을 포함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제목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비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014년 익명으로 입양절차를 밟는 것과 관련된 소위 신뢰출산 제도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출산과 낙태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입양과 직접 양육 간의 갈등까지도 임신갈등의 범주에 포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임신갈등에 대해 각국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여성의 모성권과 아동의 생명존중 가치를 지키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임신갈등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할 정도로 이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옥주, 성정현, 김지혜, 2014).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비혼 청소년의 임신과 비혼모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주로 비혼모의 실태 및 비혼모의 특성과 발생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으며(김만지, 2000; 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한영란, 양순옥, 1997), 2000년대에는 특히 10대 비혼모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 비혼모의 임신과 출산 경험, 학습권에 관련된 질적 연구, 정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등 사회·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수행되었다(서정애, 2009; 윤미현, 이재연, 2002; 이명순, 박주현, 2008; 정경순, 2008; 최승희, 2003).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선 이후에는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사회 구조적 인식개선을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은지, 김동식, 최인희, 선보영, 2013; 김혜영, 2013; 성정현, 김지혜, 신옥주, 2015; 신옥주, 2016; 이용우, 2017; 홍봉선, 남미애,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임신 중기가 되어서야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부모보다 친구가 먼저 알 정도로 가족 간 관계가 소원하거나 분리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 부모나 아기 아빠인 상대 남성으로부터 임신중절과 입양에 대한 강요를 받기도 하며, 또 청소년 당사자가 임신중절을 원하는 경우라 해도 시술에 적합한 시기를 놓치거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낙태 자체가 불법인 점 때문에 결국 무방비 상태로 출산을 하여 아기와 임산부 모두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신옥주 외, 2014). 청소년 임신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Leftwich와 Alves(2017)의 연구에 따르면, 10대 임신은 열악한 영양 상태, 뒤늦은 임신 진단과 지연되고 소홀한 산전관리 등의 위험요소와 결합하여 이들의 재정적, 정서적, 사회적 웰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임신한 10대들은 임신한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담배와 알코올 등 약물에 5배가량 더 노출되고 있고, 정서적 스트레스

와 파트너 폭력 및 유기, 불안정한 가정환경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청소년 임신 및 임신중절 경험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높은 반복 가능성이다. 미혼모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들의 성과 임신 관련 경험을 연구한 천혜정 등(2002)은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10대에 임신을 경험한 경우, 가까운 시일 내 또는 20대에 재임신 경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혜영 외(2009)의 연구에서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들 중 현재 임신 이전에도 임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4.1%로 나타나 적어도 10명 중 2명 정도의 청소년 한부모가 두 번 이상의 임신을 경험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임신 경험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절 경험에서도 이와 같은 반복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미혼모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만 14~24세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김만지(2001)의 연구에서 임신중절 경험이 1회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31.5%에 달해,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반복적인 임신, 반복적인 임신중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임신은 청소년에게 예기치 못한 위기로 인식되며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 한영란과 양순옥(1997)의 연구에서는 10대에 임신을 경험한 여성은 예상하지 못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과 놀라움, 두려움 등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스스로 믿지 못하여 임신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특히, 상대 남성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신중절을 권하거나, 임신 사실을 부정 혹은 타인에 의한 임신으로 의심하는 등 임신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10대 여성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10대 미혼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박영희(2001)의 연구에서는 십대 미혼모가 임신 중기와 남자친구와의 결별 시기에 가장 큰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신 중기에는 혼란, 수치심, 분노 등이 뒤섞인 감정을 경험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충격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한 청소년들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와 뱃속 태아에게 해서는 안 될 가혹 행위까지도 하게 된다. 정경순(2008)은 10대 미혼모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지배적이며, 죄책감에서 벗

어나기 위해 의도성을 가진 인공임신중절보다는 자연유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흡연과 음주 및 약물 복용 등을 빈번히 행하여 임신이 자연스럽게 중단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 양육 미혼모 8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남미애와 홍봉선의 연구(2011)에서도 임신을 확인한 청소년들은 방값, 생계비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거나, 임신에 대한 책임을 자신만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밥을 먹지 않고 며칠을 울고, 술 먹고 담배를 피우는 등 혼란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막막함과 공포감에 자살 생각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을 유지하고 분만하기까지 청소년들은 자신의 원가족과 남자친구 등 주변인의 지지체계 없이 다양한 좌절과 강요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혜영(2010)은 미혼부의 33%는 출산을 권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 역시 청소년 신분이고,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이나 책임성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비혼 임신 여자 청소년의 원가족 경험은 대부분 부정적이며 구조적, 기능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발견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김혜영(2010)은 청소년기에 부모가 이혼 또는 사별을 겪고 재혼 등 가족구조 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원가족의 유대와 친밀성에 변형이 발생하고 이는 곧 그들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충족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가족 밖에서 애정과 친밀감을 갈구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비혼인 상태에서, 그것도 아직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나이에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는 여자 청소년들은 대부분 원가족이나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임신갈등이라는 어려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 비혼 임신을 다룰 때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문화 및 가치관의 변화와 이러한 변동에 동반하여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과 성 의식도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비혼 임신 청소년들은 힘든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산하고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서정애(2009)의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갈등 속에서 아기 혹은 태아를 중심으로 자기가 맺어왔던 관

계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혼 임신 청소년들의 경우, 임신 지속 이유로 ‘임신중절의 시기를 놓쳐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약 30%에 달하고는 있지만, 혼자서라도 아기를 키워야 할 것 같은 책임감(10.8%)이나 생명에 대한 애착(13.8%), 낙태는 죄를 짓는 일이라서(10.8%)라는 응답을 합하면 이러한 답변 역시 30%를 넘고 있어(김혜영, 2010), 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가치나 낙태와 관련한 윤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임신 사실에 겁도 나고 걱정도 되지만 자신의 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남미애와 홍봉선(2011)은 청소년 양육 미혼모들이 출산 후 부모가 되면서 숨겨진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고취되는 경험도 한다고 응답하여 이들에게 ‘부모됨’은 새로운 능력과 가능성, 희망을 발견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 외에도 비혼 임신 청소년의 경험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모성애(노승미, 2002)’, ‘연민의 정(한진숙, 2001)’, ‘애착(한영란, 양순옥, 1997)’ 등의 주제로 연구 참여자들이 아이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 궁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청소년 미혼모’라는 차별적 개념을 넘어서서 임신에서 낙태와 출산, 입양과 양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중에 이들이 매 순간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임신갈등이라는 새로운 개념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비혼 여자 청소년이 겪는 임신갈등 경험이 가진 본질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연구 목적에 따라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시기에

비혼 상태에서 임신하여 출산을 예정하고 있거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참여 자격을 한정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실무자를 통해 소개받은 미혼모 시설 실무자들에게 연구내용과 소정의 사례비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세부 정보는 표 1과 같다. 2개 미혼모 시설에서 각 2명과 3명이 모집되었고 이 중 4명은 미혼모 시설에 거주 중이며 1명은 미혼모 시설에 2년 동안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전세 임대하여 자녀와 살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3명은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출산을 앞둔 2명 중 1명은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것을 결정했으며 1명은 입양을 계획 중이다.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 사항

시설 및 집단	참 여 자	연 령	임신/ 출산(예정) 연령	자녀 연령	임신갈등 의 해결	현재 상황	임신시 파트너 지위
가	A	24	18세/18세	7세	출산, 양육	대학에 다니며 자녀 양육	18세, 학생
	B	21	20세/21세	생후 2개월	출산, 양육	2차 시설에서 거주하며 자녀 양육	20세, 학생
	C	21	19세/20세	생후 11개월	출산, 양육	2차 시설에서 거주하며 자녀 양육 및 학원 출석	18세, 고중퇴
나	D	19	18세/19세	임신 6개월	출산, 양육계획	미혼모 시설 거주 중, 시설 내 대안학교 재학	18세, 학생
	E	19	18세/19세	임신 9개월	출산, 입양계획	미혼모 시설 거주 중, 학업 중단 상태	모름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각 개인이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정 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면접은 주된 질적 연구방법이다(장원섭, 2008 ; Bogdan & Biklen, 1982;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비혼 여자 청소년들이 임신갈등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집단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두 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각각 2명, 그리고 3명을 집단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매우 개인적이고 내밀한 내용을 다루므로 이러한 집단면담 방식이 비밀유지에 대한 염려를 초래할 수 있으나 연구 참여자들은 각 시설에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함께 거주했던 경험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임신갈등 경험에 대해 어느 정도 상호 이해가 축적된 상황이었다. 또한 집단으로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 함께 연구 참여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면접 과정에서 서로의 기억을 확인해 주거나 정보와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호작용을 통해 면접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관련된 사항을 서로 묻고 응답하면서 질문을 확산함으로써 개방적 면접의 형태를 취했다. 즉 현재 생활에 대한 평가로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항, 임신을 인지하게 된 경로, 임신 인지 후 마음의 변화, 임신갈등 해결을 위해 검토했던 대안들, 현재 상황에서 결정한 임신갈등 해결방법 및 이러한 결정에 이르게 된 경로, 대안 모색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개입 방법 및 이에 대한 평가와 느낌, 가족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로 및 임신 인지 후 반응,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 등과 같은 질문을 기본으로 하되 연구 참여자들의 환경적 맥락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조정하였다.

면접은 각 시설의 집단에 대해 100분, 120분간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자 및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서명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였다. 아직 20세에 이르지 않은 연구 참여자의 경우, 시설의 실무자 동의도 함께 받았다. 면접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맥락을 기록하였고 녹음된 면접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문자화하였다.

문자화된 경험 자료는 van Manen(2014)이 제시한 다음의 현상학적 체험연구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우선 경험 자료 전체 읽기를 통해 텍스트가 가진 직관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포착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경험과 현상이 내포한 의미를 보여주는 일화를 찾아내고 현상학적 의미를 탐색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된 일화에 대해 세부적 읽기를 수행함으로써 현상과 체험에 대해 각 문장과 단어가 가진 의미를 규명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사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읽기를 수행하였고, 그중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임신갈등

경험에 대한 지향성이 드러나는 일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각 일화가 가지고 있는 현상학적 의미를 포착하였다. 다음으로 세부적 읽기를 통해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의미 단위를 범주화하고 그로부터 주제를 추출하였다.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1인, 청소년 상담전공 대학교수 1인과 함께 공동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van Manen(1997)의 견해를 따라, 다양한 출처의 자료로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경험 자료의 맥락성을 확인하고자 연구 참여자들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듣고 있는 미혼모 시설의 실무자를 면담하였다.

IV. 연구결과

1. 비혼 여자 청소년의 임신갈등 경험의 하위범주와 주제

<표 2> 비혼 여자청소년의 임신갈등 경험의 하위범주와 주제

하 위 범 주	주 제
• 믿기 어려운 현실 • 혼인 없는 임신과 아이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 •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통	임신갈등 속, 홀로 남겨짐
• 남자와 달리 종난 여자의 인생 • 지움의 갈등 • 키움의 갈등	절망 속, 끝나지 않는 선택
• 나를 버림, 그리고 내가 버림 • 태아를 느낌 • 새로운 관계의 인식 • 미래의 나에게 다가서기	새로운 질서 속, 주체로 재탄생

혼인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임신갈등 경험과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질적 면접에서 얻어진 경험 자료를 분석하여 10개의 하위범주에서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임신갈등 속 홀로 남겨짐’이라는 주제 하에 ‘믿기 어려운 현실’, ‘혼인 없는 임신과 아이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통’이라는 3개의 하위

범주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절망 속 끝나지 않은 선택’이라는 주제 아래에 ‘남자와 달리 종난 여자의 인생’, ‘지움의 갈등’, ‘키움의 갈등’ 3가지 하위범주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질서 속, 주체로 재탄생’이라는 주제는 ‘나를 버림, 그리고 내가 버림’, ‘태아를 느낌’, ‘새로운 관계의 인식’, ‘미래의 나에게 다가서기’ 등 4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2. 비혼 여자 청소년의 임신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관한 경험 분석

1) 임신갈등 속, 홀로 남겨짐

① 믿기 어려운 현실

참여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상당한 기간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임신에 대한 준비나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임신을 인지한 후 당황하고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연구 참여자 B는 생리가 끊기자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한 후 자신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뭔가 (생리)할 예정일이 되었는데 (생리를) 안 해가지고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까 두 줄이 떠서,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해서 임테기를 혹시나 해서 8개를 해봤는데 8개 다 두 줄이 나온 거예요. <중략> 오류일거야. 불량일 거야. 그러면서 계속 했는데 두 줄이 나왔는데... <참여자 B>

고등학교 졸업 후 20세에 임신을 하였고 21세에 출산한 참여자 D는 임신을 예상한 후 2~3일 사이에 임신 테스트기를 8회나 사용할 정도로 자신의 임신 사실에 불안함을 느끼고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또한 임신 초기에 아이 아버지와 3개월 정도 동거하기도 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약속한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② 혼인 없는 임신과 아이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

혼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하게 된 여자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출산하여

입양 혹은 양육 사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의 지원이 요구된다. 어머니와 남동생,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 참여자D의 가족들과 아이 아버지는 인공임신중절을 권유한다. 참여자B의 아버지와 오빠, 참여자C의 아버지도 폭력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강요하였다.

제 목이 잘릴 뻔 했어요. 그렇게 쫓겨나서 자면 (연: 누구한테 목이 잘려?) 저희 아버지한테...(중략) 찢질방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응급으로 지금 있는 곳에 입소해서 1년 넘게 살고 있어요. <참여자C>

처음에 아기 아빠도 같이 지우자고 막 울면서 진짜 지우자고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확고하니까... 포기하고 그랬어요. (중략) 엄마도 처음엔 지우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니네가 어차피 솔직히 책임 제대로 못 질 거면 지워라, 이랬는데... (중략) 할머니가 진짜 나 싫다고, 집에서...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참여자D>

참여자D는 위클래스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 자신의 선택을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렸다. 어머니와 남자 친구는 참여자D에게 인공임신중절을 권유하였으나 참여자D는 자기 선택에 대해 계획과 확신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이들을 설득하여 출산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그러나 할머니는 참여자D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수용하지 않은 채 현실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참여자B와 참여자C의 경험은 그들의 가족이, 딸의 혼인 없는 임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며 출산 후 양육 중에도 가족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뿐 아니라 태아까지 고려하는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가족들은 태아가 아니라 자신의 딸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참여자들과 가족 간 갈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서 원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기간 중 아이 아버지와 그들의 가족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출산과 양육 결정이 미혼모 시설과 같은 사회적, 공적 지원과 지지 속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통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을 인지한 후 1388이나 쉼터, 위센터 등 위기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다. 대체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에 개입하는 기관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신뢰가 낮게 나타났다.

저는 그때 거의 자포자기? 그리고 저는 그때 1388에 전화했어요. 도와달라, 근데 임신 몇 개월이나 이런 거를 물어보다가 병원을 가게 해 달라, 한 번도 못 갔다, 이래서 병원을 한 번 갔어요. 근데 너무 집요하게 가족들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부모님들한테 알려려고... 근데 거의 반협박성으로 알려야 한다, 너가 안 알려면 내가 알아내서라도 알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잠수 탔어요.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다. <참여자A>

외진 지역에 살았던 참여자A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던 아이의 아버지가 차일피일 약속을 미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임신 8개월을 맞이한다. 이때 ‘자포자기’ 한 심정으로 1388 청소년 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을 통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해당 기관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려고 하자 담당 상담자와 연락을 끊는다. 참여자B도 임신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며 긴급전화를 이용했으나 상담자가 가족이나 아이 아버지에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참여자A와 참여자B의 경험을 통해 임신갈등 중인 청소년들은 1388과 같은 청소년 긴급구조 서비스를 자신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소진되었을 때 마지막에서야 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절망 속, 끝나지 않는 선택

① 남자와 달리 종난 여자의 인생

연구 참여자들은 남자인 아이 아빠들과 임신한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억울함을 느끼며 자기 미래가 불안하여 우울해지기도 한다. 참여자A는 외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임신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이 모두 무산되었다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 남자애는 거기서 지내면서 그 혜택 다 누리고 그 학교에 다니고 그 부모님과 행복하고 친구들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이 모든 고통을 부모님과 매일 싸우고 저 새끼는 여자나 만나고 있고 나는 대학도 포기하고... <참여자A>

그러나 임신에 대해 자신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아이 아빠는 학교, 가족, 친구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자기 삶을 평화롭게 이어 나가면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참여자A는 자신의 임신뿐 아니라 오랫동안 연인 관계였던 아이 아빠에게 느끼게 된 깊은 배신감 때문에 더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아이 아빠는 참여자A가 원하는 대로 임신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지원을 받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을 믿고 있었던 참여자A는 임신 7개월이 될 때까지 병원에도 한번 가지 못했다. 참여자D 역시 참여자A나 참여자B가 아이 아빠와 사이에서 경험했던 일련의 사건과 감정을 유사하게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애는 이제 상관이 없구나, 나랑... 스트레스만... 애가 자꾸 이런 식으로 회피만 하는데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혼자 소설 쓰는 거 잘 잘하거든요. <참여자D>

참여자D는 아이 아버지가 20세가 되는 2년 후부터 동거를 약속했지만 아이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된다. 참여자D는 아이 아버지의 약속에는 어떤 생명이나 신뢰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때가 되면 함께 살자고 약속을 반복하게 된다. 또한 길으로는 동거를 약속한 사이라고 말하지만 아이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상상으로 이어가게 된다.

② 지움의 갈등

인공임신중절과 임신 지속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결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고생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인공임신중절을 현실적, 허용적으로 고려하며(김연아, 오진아, 2011)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10대 여성 중 95%는 인공임신중절을 택한다(Choi, Kim, & Shin, 2004).

참여자C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갈등의 해결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장 먼저, 혹은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실제로 주위의 많은 여자 청소년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통해 임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임신에 매우 당황하고 불안함을 느꼈으며 참여자D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 아버지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자신의 임신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임신을 인지했을 때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못하며 심리적·물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임신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인해 임신 지속을 결정했다.

‘세상에 빛이라도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다가 양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중략) (주 : 인공임신중절을 했을 경우) 만약에 법적으로 걸리면 감당하기도 힘들었고 (중략) 걸리게 되면 징역도 있고 벌금도 있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 재는 애 지워서 저랬다, 하는 소문도 있을 거고 저는 주위 시선이 너무... <참여자C>

그냥 낳으라고 추천할 거예요. 낙태를 하면 니 인생이 더 험난해질 거라구... 우울증이 엄청 심하대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우울증이 심하대구... 너만 힘들어질 거다... <참여자E>

참여자C는 아이를 ‘책임지지 못할 것이면 임신 10주 이전에 지우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도 아이가 세상을 보는 것을 자신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임신 초기 일찍이 인공임신중절이 아닌 출산 후 입양을 선택했었다. 또한 참

여자C는 소위 낙태법에 따라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혼인 외 임신보다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평판이 자신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참여자E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출산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생각했으나 임신 기간을 거치면서 자신이 인공임신중절을 했다면 죄책감으로 인해 오랜 기간 근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은 자신이 조금 편해지려는 의도로 실행되지만 결국 상실감과 슬픔이 계속되므로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참여자E의 전제와 예상을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임신 초기에 우울과 불안이 높았으며 이러한 정신 건강상의 문제는 다음 임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Fielding & Williams, 1991).

③ 키움의 갈등

참여자C는 현재 미혼모 시설에서 생후 11개월 된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으나 오랜 기간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였다.

들어간 시설에서 간호조무사 학교를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취업성 공패키지라는 사업이라서 저는 그걸 배우면서 키워야겠다 하고 마음이 돌아섰어요. (중략) 그 때는 키울지 입양을 보낼지 갈등은 계속 있었어요. <참여자C>

참여자C는 자신이 아이를 키우게 될 때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였기 때문에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나 출산을 위해 입소한 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과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양육을 선택한다. 참여자E 역시 참여자C가 처음에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과 비슷한 사유 때문에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한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 한 후 시설의 상담선생님 및 친구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면서 천천히 결정했다. 이 때 시설의 상담선생님은 참여자E가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었을 뿐 구체적 조언을 하지 않았다. 참여자E는 아이 키우는 것은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며 자신이 뭔가 잘못하여 아기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면서 아기 입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도 아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기 좋아하는 거랑 키우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키워야 되는 거는 일단 제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한테... 아직까지는 저도 어리고 아기도 어리고 키우는 것 보다는 그냥 나보다 더 좋은 사람, 가정집에 가서 그냥 보내기로 했어요. (중략) (주 : 아기도) 커서 알게 되겠지만 나한테 자라는 것 보다는 그냥 밖에 나가서... <참여자E>

참여자E처럼 양육자는 입양과 양육에 대해 경제적 여건을 중심으로, 자신의 미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나 피입양자 혹은 피양육자의 입장에서든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함으로써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박탈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었다.

4) 새로운 질서 속, 주체로 재탄생

① 나를 버림, 그리고 내가 버림

임신 기간 중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오던 연구 참여자와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파탄의 과정을 겪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기간 중 출산 후 자신과 아기의 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준비하고자 하나 아이 아버지들은 임신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이가 육손 수술을 했거든요. (중략) 이거 수술한 날에도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중략) 제가 사진 찍 보냈어요. **이 전 여자 친구인데 사이에 아기가 있는데 지금 10개월이 다 되어 간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중략) 너무 껄뽀해서요. (중략) 지금 내가 돈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시설에서 퇴소하고 본가로 갔는데 애가 시내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가서 때리겠다, (중략) **에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나 시설 퇴소하고 애랑 싸우게 두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가족들 다 짐 싸서 서울로 내려갔어요. 내쫓았어요. 돈 다 필요 없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참여자C>

참여자C는 아이를 두 번 정도 만났으나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아이 아버지를 한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각자 잘 살자면서 헤어진다. 그러나 아이 아버지는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해 왔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를 꽤 씬하게 생각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출산을 알린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A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참여자A도 아이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아이 아버지의 평판을 훼손할 목적으로 자신의 임신 사실을 학교와 아이 아버지의 가족에게 알리고 고향을 떠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초기에 아이 아버지와 어느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점점 서로에게 소원해진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 아버지의 생활과 태도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상태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에게 기대와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도, 자신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아이 아버지에게서 양육비를 받는 것을 한사코 거절하게 되는 것이다.

② 태아를 느낌

참여자B는 임신을 인지한 후 낙태에 대해 고민하면서 유튜브에서 ‘낙태’와 ‘출산’ 등을 검색하던 중 ‘우연하지 않게’ 낙태에 대한 영상을 보고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 그 영상에서 인공임신중절이 시도 될 때 배 속의 태아가 도망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막 도망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차마 못 하겠더라구요. 제 인생을 살자고 생명을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아기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참여자B>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B가 유튜브의 영상 속 태아가 마치 자신의 아기처럼 느껴졌을 가능성과 수술은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자신이 아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생각했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로 인해 아기는 잘못 없이 죽게 되며 그것은 자신이 태아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의식하게 된다. 참여자B의 경험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며 모니터를 안에서 대상화되었을 뿐이나 자신의 눈으로 태아로 예상되는 형상을

직접 보았을 때 자기 몸 안에 하나의 생명체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태아를 생명체로 느끼는 것은 참여자E처럼 훨씬 더 이른 시기, 즉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즉 참여자E는 초음파 검사 중에 자신이 임신하였으며 자기 몸 안의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한다.

초음파 화면 있잖아요. 화면을 봤는데 동글동글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 동글동글한 거 뭐예요, 했는데 아기래요. 그래서 뭐지, 뭐지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지,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략) 애도 하나의 생명이기도 하고... 그 때 제가 심장 소리를 들었거든요. (중략) 애도 하나의 생명인데 꼭 그렇게 애를 죽여야 되는 것도 그렇고... 애가 죄는 아니잖아요. <참여자E>

참여자E가, ‘동글동글한 것’이 아기이므로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낙태’였다. 그러나 참여자E는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일 뿐 아니라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는다. 게다가 전날 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죽게 된 아기가 ‘좀 안 됐다’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결국 참여자E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참여자B처럼 자신으로 인해 태아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태아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출산을 수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③ 새로운 관계의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인공임신중절을 임신갈등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했음에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자신 사이의 관계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관계 인식은 스스로 의식할 만큼 분명한 것은 아니나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진술을 통해 상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참여자A는 임신 초기에 자신의 임신을 인지한 후 계획했던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못한 채 임신 8개월을 맞이하였으며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참여자 A의 아버지는 딸을 중국의 병원에서 수술받게 하려고 중개인을 만나도록 주선하였다.

나가니까 (주 : 중국의 병원을 중개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요. 무슨 요일, 몇 시에 이런 비행기를 탈 꺼다, 가서 약을 맞고 아기는 분만 유도하고 입양을 하고 너는 2~3일 있다가 퇴원을 하면 된다... 내가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나도 모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참여자A>

당시 참여자A는 인공임신중절을 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아이를 낳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TV에서 보았던 중국의 인육 캡슐 같은 것에 자신의 아이가 희생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공항으로 가는 대신 아버지로부터 도망친다. 즉 참여자A는 중국에서 출산할 경우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출산 이후에 대한 분명한 계획 없이 아버지의 보호에서 벗어나기를 결정했다. 자신의 아이가 아직 태아였지만 참여자A는 이미 자신의 아이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아이를 보호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D도 태아와의 관계 맺기를 시도하면서 아이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와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가끔 애 아빠 때문에 아기를 원망하는데... 근데 물론 금방 사과를 하죠. 아기한테... (중략) 아들은 잘 키워야 되어요. (중략) 우리 애 아빠 같아지면 어떡해요. (중략) 시어머니도 (주 : 아이 아빠랑) 똑같 더만... <참여자D>

참여자D는 아기로 인해 아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자신의 임신을 후회하고 아기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지만 곧 자기의 생각을 되돌리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여자D는 이미 아기가 자신의 옆에 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태아에게 용서를 빈다.

④ 미래의 나에게 다가서기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과 입양 이후 삶의 계획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편이

다. 시설에서 출산을 기다리면서 상담을 받고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자기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이 있었다.

제가 검정고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시설 자체에서 만든 학원에 다녀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B>

저는 일단 2년제 대안학교를 다닐 거란 말이에요, 내년부터. 입학해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하고 싶은 게 일단 있으니까... <참여자E>

참여자B는 아이가 좀 크면 친구인 참여자C처럼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도 하여 아이를 양육하려고 한다. 자녀가 7세인 참여자A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고 참여자C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닌다. 이들은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이나 직업 생활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제도를 활용해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참여자D는 임신 기간 동안에도 학업을 멈추지 않고 대안학교를 다니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려고 한다. 참여자E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아 중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시설에 거주하면서 2년제 대안학교에서 졸업하려고 계획 중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으로 인해 자신의 꿈이 좌절되고 미래를 무너졌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으며 또래 여자 청소년들과 달리 청소년기를 충분히 만끽하지 못한 채 어머니로서, 양육자의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도 임신갈등 속에서 아기 혹은 태아를 중심으로 자기가 맺어왔던 관계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체와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서를 만들고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비혼 여자 청소년의 임신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관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는 5명의 여자 청소년이 참여한 2개 집단에서 질적 면접을 진행하여 경험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개의 하위범주와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주제인 ‘임신갈등 속 홀로 남겨짐’ 속에는 ‘믿기 어려운 현실’, ‘혼인 없는 임신과 아이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통’이라는 3개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믿을 수 없고 부정하고만 싶었던 임신 사실을 인지한 여자 청소년은 자신의 원가족과 아이의 아버지는 물론 청소년 긴급전화 등 공적 서비스 체계로부터도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심리적, 물리적으로 격리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미혼모들이 임신을 지속하고 출산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결정을 돕거나 지지하는 주변인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미혼모들의 35.5%가 ‘혼자서 결정’했으며, 다음으로 ‘아기 아버지’가 29.6%, ‘나의 가족’이라는 응답이 23.7%의 순으로 나타나 대단히 불안정하고 고립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힌 김혜영(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혼외 임신으로 갈등하는 여자 청소년들은 사회구성원으로 진입하기 전 임신으로 인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분리되고 외면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연구(김정희, 김향미, 2018)와 비혼 임신 청소년의 가족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연구(김효연, 2014 ; 이정실, 2018)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임신 초기에 우울과 불안이 높았으며 비혼인데다가 아직 청소년인 자신이 임신한 사실에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병원 진찰조차 두렵고 무서워 가지 못했거나, 망신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누구와 상의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하고 결정하지 못해 시간만 보내 막달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이정실, 2018). 비혼 임신 청소년이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가족이어야 마땅하겠지만, 선행 연구들은 이들의 가족이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이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 예로 청소년기 가족특성이 청소년 비혼 임신의 발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김혜영(2010)에 따르면 연구 대상 미혼모의 나이가 낮을수록 원가족이 재혼가족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비혼모가 점점 증가 추세인 지금 비혼 임신 청소년의 원가족을 그저 낙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원가족이야말로 정서적으로나 현실적 측면에서 임신갈등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지지원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관계 회복 및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원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비혼 임신 청소년들은 가족주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기성의 부모세대에게 혼전임신과 출산의 사실을 알리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극한의 감정대립이나 부모의 강제적 개입을 경험하기도 한다. 절대로 환영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합리적인 대처를 위한 원가족의 이해와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실상 이들의 원가족도 자녀의 임신 사실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많은 혼란을 겪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전무 하다. 극도로 악화된 관계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매우 깊어지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거나 중재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없어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이에 임신갈등 청소년의 원가족을 가족상담적 관점으로 조력하여 든든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임신갈등 청소년 원가족의 어려움 등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혼모 시설 등과도 협력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주제인 ‘절망 속 끝나지 않은 선택’은 ‘남자와 달리 종난 여자의 인생’, ‘지움의 갈등’, 그리고 ‘키움의 갈등’ 등 3가지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비혼 임신 여자 청소년들은 아이 아버지와 대비되는 자신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절망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인공임신중절과 임신 지속, 양육과 입양이라는 끊임없는 갈등과 선택의 기로를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한 여자 청소년들은 대체로 남자 친구의 요구에 따라 사랑이나 신뢰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하게 되며 이렇게 일방적이고 다소 착취적 관계는 임신이라는 위기 국면에서 쉽게 해체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효연, 2014; 이정실, 2018). 해결하기 힘든 커다란 장벽 앞에 직면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인 아이 아버지들은 이들 역시 대부분 청소년기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지원이나 책임성을 동반할 수 없음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보이는 거짓과 회피, 낙태 강요와 무책임성은 임신갈등 여자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선행연구와 실태조사를 살펴볼 때 늘 등한시되고 문제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집단이 임신갈등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소위 ‘상대 남성’, 즉 아이의 아버지이다. 낙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파트너의 태도가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점점 더 증명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담 기간 동안 파트너가 더 깊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정현미, 2010). 미혼부들과의 인터뷰 결과, 미혼부들 또한 계획되지 않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혼란, 죄책감, 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압박감 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미혼모 관련 이슈에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미혼부의 심리·정서적 갈등과 어려움에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뷰에 참여한 미혼부들의 사례를 볼 때(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 우리 사회에도 미혼모들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미혼모의 어려움을 분담하며,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를 갖춘 미혼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혜영 외, 2009).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인 미혼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혼인 여부에 집착하는 것 보다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아버지, 남성상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미혼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해서 원한다면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아기 아버지도 함께 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청소년 양육 미혼모·부가 양육의 경험을 함께하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권정미, 2016).

마지막으로 도출된 세 번째 ‘새로운 질서 속, 주체로 재탄생’이라는 주제는 ‘나를 버림, 그리고 내가 버림’, ‘태아를 느낌’, ‘새로운 관계의 인식’, ‘미래의 나에게 다가서기’ 등 4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임신으로부터 출산, 입양, 양육에 이르기까지 지난 했던 선택 과정은 여자 청소년 스스로 구축하는 관계 맺기의 새로운 질서와 병행 하여 일어난다. 즉 여자 청소년의 임신갈등 해결 과정 속의 수많은 선택은 무책임한 아이 아버지와의 결별,

태아와의 접촉과 만남, 아이와 함께 나 자신이 생존하기 위한 미래의 계획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비혼 임신 여자 청소년들이 출산과 양육을 자기 삶의 새로운 기회로 삼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모성 중심으로 새로이 기획한다고 밝힌 서정애(2009)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임신 지속과 낙태 사이의 갈등에서 문득 다가온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은 주변의 만류와 마땅치 않은 여건 가운데서도 임신 지속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감행하는 데 주요 동기로 작용하였고 실제로 청소년 미혼모들의 임신 지속 사유로도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C는 처음에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 입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나 출산을 위해 입소한 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과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양육을 선택한다. 이는 임신을 인지한 시기가 빠르고 정서적 지지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입양보다 양육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이은주, 최규련, 2014)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 비혼 임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논의에도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즉 비혼 임신 청소년들을 문제 상황에 직면한 ‘일탈자’ 또는 그저 수동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요보호 집단’으로 일반화하기보다 이들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입양과 양육이라는 임신갈등의 위기와 도전에 맞서 매 순간 선택의 주체로서 자신을 규정해 나가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김혜영, 2010).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예기치 않은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비난과 낙인보다는 전폭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자기 자신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돌봄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혼 임신갈등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단계별(임신상태, 인공임신중절 후, 출산 후, 입양 후, 양육기간 등)로 개발하여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심각한 다음 단계의 위기로 진입하지 않도록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출산 이후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전문적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산전산후관리 및 미혼모와 아기 양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특히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해야 하는 엄마들에게 아기 키우는 데 필요한 실제적 정보를 알려주고 지원하는 방문상담, 동료상담 형태의 접근이 효과적

일 것이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안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거나 혹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며, 자립 관련 정보 및 자원을 연계해야 한다. 아기를 출산한 이후에는 자녀를 입양할 것인지 혹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숙려상담을 실시하며,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결정하는 경우 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직접 연계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혼 여자 청소년의 임신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관한 경험을 탐색하고자 임신 중이거나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질적 경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낙태법이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불법 행위인 낙태 경험을 면밀하게 탐색하기 어려웠던 점, 대상을 여자 청소년에 한정함으로써 그들의 파트너인 아이 아버지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 외 관련 직종 종사자들과 교사, 그리고 부모들이 참여하는 질적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현실에 더 부합하고 균형 있는 정책 및 실천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19). <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 권정미 (2016).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삶의 경험: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 적용.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2), 77-103.
- 김만지 (2000).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만지 (2001). 청소년 미혼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1), 219-241.
- 김만지 (2004).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또래,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5(2), 5-25.
- 김은지, 김동식, 최인희, 선보영 (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36-02.
- 김정희, 김향미(2018). 청소년 미혼모의 사회적 인정과 법정책. **사회복지법제연구**, 9(3), 109-132.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36-01.
- 김혜영 (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젠더와 문화**, 6(1), 7-41.
-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2009 연구보고서-10)**.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2010). 십대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 경험: 주체와 타자의 경계에서. **한국여성학**, 26(4), 101-131.
- 김효연 (2014).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경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남미애 (2013).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4, 91-125.
- 남미애, 홍봉선 (2011).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부모됨의 경험과 의미: 시간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3), 141-170.

- 노승미 (2002). **미혼모가 된 과정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희 (2001). 10대 임신 청소년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 77-97.
- 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김현주, 이재연. (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서정애 (2009). 십대 미혼모의 임신경험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1), 281-308.
- 성정현, 김지혜, 신옥주 (2015). 미혼모의 임신출산위기 경험과 위기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2), 277-309.
- 신옥주 (2016). ‘미혼모’의 인권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한양법학**, 21(2), 234-272.
- 신옥주, 성정현, 김지혜 (2014). **미혼모 지원시스템 정비를 위한 연구**.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 신윤정, 이상림, 김윤희 (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 윤미현, 이재연 (2002).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149~160.
- 이명순, 박주현 (2008). 입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3), 187-205.
- 이용우 (2017).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97-115.
- 이은주, 최규련(2014), “시설 미혼모의 양육 입양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2), 247-260.
- 이정실(2018). 출산 전 양육 비혼모의 삶의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0), 657-668.
- 장원섭(2008).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평생교육 개념 이해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 **Andragogy Today**, 11(2), 101-121.
- 정경순 (2008).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 **아동간호학회지**, 14(2), 186-194.

- 정현미 (2010). **형법에서의 여성인권 개선방안 연구(낙태죄 규정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 천혜정, 배선희, 송말희, 송현애, 전길양 (2002). 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성과 임신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12.
- 최승희 (2012). 미혼모자시설 내 대안학교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 23, 281-306.
- 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대한가족계획협회부설성문화연구소.
- 한영란, 양순옥 (1997).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1(2), 194-208.
- 한진숙 (2001). **10대 미혼모의 임신과 분만 체험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봉선, 남미애 (2011).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청소년학연구**, 19(9), 19-52.
- Bogdan, R. C. & Biklen, S. K. (198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Boston: Allyn and Bacon.
- Leftwich, H. K., & Alves, M. V. O. (2017). Adolescent pregnancy. *Pediatr Clin N Am*, 64, 381-388.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Sage.
- van Manen, M. (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신경림 역. **체험 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van Manen, M. (2014). *Phenomenology of Practice: Meaning-Giving Methods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Writing*. Left Coast Press, Inc.: Walnut Creek, CA.

-Abstract-

A Study on the Pregnancy Conflict Experience of Non-Married Female Adolescents

Bae, Heeboon · Lee, Hyeijung

Sangmyung University · Youth&Gender Research Center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egnancy conflict of non-married female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van Manen's phenomenological experience research method was applied. The subjects of study were 5 non-married female adolescents from 2 single mother facilities.

The research revealed a total of 3 categories and 10 subcategories. Under 'Being left alone in pregnancy conflict' were 3 subcategories: 'Unbelievable reality,' 'Pregnancy out of wedlock and people who wants abortion,' 'The pain that nobody knows.' The second main category 'Endless choices in despair' consisted of 3 subcategories: 'The women's life ruined (as opposed to men),' 'Conflict in abortion,' 'Conflict in raising a child.' The last main category, 'Regeneration as main agent' was consisted of 4 subcategories: 'Letting go of myself by myself,' 'Feeling the fetus,' 'Realizing new relationship,' and 'Stepping to the future self.' This study shows that adolescents with pregnancy conflict establish a new order of relationship to regenerate themselves as a woman who escape from a shrunken life by pregnancy and live without shame as she perceives herself as the mother.

* Key words: Female Adolescent, Non-Married, Pregnancy Conflict
Phenomenological Experience Research